



IBKS Spot Comment

IT/소재/부품/장비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마이크로디지털]

진정한 바이오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확정!

What's New:

어제(31일)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마이크로디지털의 북미 핵심 파트너사인 A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FORTUNE 500기업 중 216위에 랭크된 **Parker Hannifin**이라는 것이 밝혀짐. 또한 이미 최종 고객사로 화이자, BMS 등 미국 대형 제약사와 다수의 대학 연구소에 공급될 것으로 확인됨.

Analysis:

이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ASML,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장비를 공급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라 분석됨. 오히려 국내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보다 늦게 태동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한 성과보다 더 큰 결과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마이크로디지털이 공급하는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은 미국과 독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아직 일본 기업들조차 진출하지 못한 시장으로 동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So What?: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산업계 곳곳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의제가 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 발표에서 품목 관세 대상에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문제점을 부각했음. 또한 미국이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압박함. 국내 기업 중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릴리, 화이자, J&J 또한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북미 시장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와 실질적 매출 확대에 필수 불가결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음. 핵심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한 동사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부각되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